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pp.43-6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제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

최영갑

(유도회총본부 총무국장)

《요약》

본 논문은 7차 교육과정 속에서 유교의 종교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가장 먼저 유교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유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유교의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유교는 완인(完人)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도 또한 완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진정한 종교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 전담교사가 양성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교과과정 또한 종교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소아기부터 종교적 심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들과 종합적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주제어: 유교(儒敎), 완인(完人), 인격교육, 가정교육, 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역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던 문제들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물질문명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금기

되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생명 창조의 문제조차도 이제는 인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갖기에 이르렀다.¹⁾

물론 과학과 종교가 양립 가능 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현대 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은 주관적이고 고백적인 것인데 비하여, 과학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며 검증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²⁾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종교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가 담당하는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같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종교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갖기도 한다.

논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 교육’은 매우 애매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점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유교라는 종교가 갖는 독특한 역사적, 이념적 위치에 근거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고 지면의 한계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하고 유교의 교육관과 종교 교육에 대한 운영을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현실 참여적인 종교이다.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며 신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는 내세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보다 현재의 삶과 현재의 인간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유교의 성인(聖人)인 공자(孔子)와 아성(亞聖)인 맹자(孟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은 이러한 인간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전개되는 유교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자는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유전공학의 발달과 인간 유전자 지도의 발견으로 인간 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생명 창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생명의 창조가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종교의 측면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 나남출판, 2001), 500쪽.

II. 7차 교육과정과 유교

1. 7차 교육과정과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교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그것의 사회적 반영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혼동한 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유교 자체의 본질적 이념과 사회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유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³⁾에 나타난 문제점이 양자의 혼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인 B.C.551년에 태어난 공자(孔子)에 의해 창시된 철학, 정치,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념 체계이다. 공자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夏)·은(殷)·주(周)의 문화적 업적을 계승하고 종합하여 탁월한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그로 인해 중국 최초의 철학자⁴⁾라는 미명을 얻게 되었다. 공자의 사상은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에게로 전해져 더욱 이론적 보완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제자들은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공자의 이념을 전파하였다.

진시황에 의해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종말을 고하고, 뒤이어 한제국(漢帝國)이 성립된 후 한 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국가적인 이념 체계로 정착시켰으며, 유교의 이론적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즉, 공·맹 당시의 유교 이념은 일정 정도 국가적인 체제 이념으로 변형되고 공·맹 유교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변화들은 이후 유교 이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⁵⁾

그 후 유교는 당나라 말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국가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 교육부, 2001)

4) 勞思光, 『中國哲學史』, 鄭仁在 譯, 『중국철학사』(古代篇) (서울 : 探求堂, 1991), 53쪽.

5) 최영갑, 선진 유가의 도덕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03쪽.

의 제도와 체제에 침투하지만 유교 사상의 본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당나라 말기부터 일어난 신유학의 태동은 남송의 주희(朱熹)에 의해서 성리학적 체계를 완성하고, 성리학의 이념은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수입되어 조선조를 풍미하는 이념 체계가 된다.

그러나 유교 이념을 토대로 한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유교로 떠넘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유교 이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서구화되면서 유교적 이념과 유교적 교재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맹 유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후 변형된 유교 이념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종교 교육의 경우 일부분에 치중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

2) 유교에 대한 오류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오류는 공·맹의 유교와 이후 변형된 유교 이념의 혼동에 기인한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혼동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간단한 표현 방식의 문제로 넘겨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변천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형태의 유교 이념 중에서 무비판적으로 계승된 유교의 잔재가 유교의 본질인 양 여겨지고 교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교육된다면 유교의 종교 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이나, 사서삼경(四書三經)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분이다. 삼강과 오륜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완전히 상이한 개념이다. 오륜은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 쌍무적 관계로 보는 한편, 삼강은 수직적 상하 관계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나란히 언급될 수 없는 개념이다.⁷⁾ 그동안 많은 곳에서 삼강오륜을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거나 유교 윤

6) 7차 교육 과정 중 종교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유교와 주희를 중심으로 한 송명시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퇴계와 율곡에 치중하여 유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위의 책, 100 121쪽 참조.

리 규범의 핵심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부적절함은 유교 이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또한 유교의 경전은 사서와 오경 또는 13경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교육과정 속에서는 사서삼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교 경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유교 이념 자체의 축소와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인은 물론 지식인 계층에게도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유교에 대한 종교 교육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2. 유교의 교육관과 종교 교육

1) 교육 목표와 종교 교육

역사적으로 유교는 오래 전부터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태학이 설립된 것이 372년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600년 전부터 유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교육제도가 정립되면서 유교는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편성된 적이 없다. 현재에도 유교 이념을 교시로 하여 설립된 중등학교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교육이란 말은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는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하면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군자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후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교사로서의 의무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자는 유교에 있어서 이상적 인간의 보편적 개념이다. 성인(聖人)이나 인자(仁者)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군자는 지식을 갖추고 도덕성을 함양한 균형잡힌 완전한 인간[完人]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완성이다. 그런데 군자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덕목은 바로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맹자가 말하는 인재에 대한 교

육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

유교의 교육 목표는 세 가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한 인격교육이요, 둘째는 개인의 자주정신과 인류 사회에서의 봉공의식(奉公意識)을 주된 가치로 하는 인도주의 정신의 배양이요, 셋째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교육이다.⁸⁾

이와 같은 세 가지 이념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유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것은 인(仁)의 완성으로 표현된다. 공자가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예와 같은 것은 무엇하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다면 음악과 같은 것은 무엇하겠느냐”⁹⁾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7차 교육 과정 속에서 드러난 “종교 교육은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⁰⁾는 종교 교육 과정 설정의 배경과도 부합된다.

7차 교육 과정 속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는 종교학적 종교 교육과 신앙적 종교 교육을 병행하던 기존의 종교 교육 과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종교학적 내용이 좀더 강조되고 이에 관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식과 도덕성을 모두 함양한 균형잡힌 인간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 학문적 심화 교육과 정서적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일정 정도 종교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통한 인격 교육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의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학자 가지노부유키(加地伸行)가

“만일 종교(어느 종교라도)에서 죽음의 문제에 관한 설명을 빼낸다면, 무엇이 남을까? 뜻밖에도 거기에는 거의 윤리 도덕만이 남을 뿐이다. 거꾸로 종교에서 윤리 도덕을 빼냈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죽음, 죽음에 관한 문제가 남을 뿐이다”¹¹⁾

8)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유학사상』 (서울 : 200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25 227쪽 참조.

9) 『논어』 「팔일(八佾)」편 :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10) 교육부, 앞의 책, 124쪽.

11) 박홍식, 「유교의 종교관」,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9),

라고 말한 것처럼 종교의 내용 중 윤리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어떻게 종교를 통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교육 방법과 종교 교육

유교의 교육 방법은 유교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역사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완인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한다.¹²⁾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선인(先人)의 역사를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방법을 제시한다. 오경(五經) 중에서 『서경(書經)』과 『춘추(春秋)』¹³⁾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배우고 선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덕적 평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통 유교의 주장에 입각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맹자(孟子)의 대전제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 선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긍정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것을 교육의 측면에 반영시킨다면 모든 인간이 성현(聖賢)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게 되고 그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이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¹⁴⁾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갈망하는 전형적 표현이다. 공자 당시의 교과목은 예(禮) · 악(樂) · 사(射) · 어(御) · 서(書) · 수(數)라

149쪽 재인용.

12)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앞의 책, 228 ~ 229쪽 참조. 이 책에서는 역사적 방법, 도덕적 방법, 완인적 방법을 교육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방법이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에, 논자는 이것을 유교의 인간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3) 『서경』은 상고시대의 성왕인 요(堯)로부터 주대(周代)에까지 여러 제왕들의 정법상(政法上)의 발언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며, 『춘추』는 중국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로서 공자의 독자적인 역사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필삭한 책이다.

14) 『논어』 「위정」편.

고 하는 육예(六藝)였다. 여기에는 단순한 기술(技術)만을 중시하거나 도덕적 존재인 양자만이 아닌 양자를 모두 겸한 완인으로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인간관을 기반으로 유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을 주장한다.

(1) 개성 중시

유교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였다. 공자는 “제자를 양성함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개성과 자질이 모두 다름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¹⁵⁾ 인(仁)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러한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다. 『논어』에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질문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러나 공자는 여기서 단 한번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안연(顔淵)에게는 인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¹⁶⁾으로 설명하고, 중궁(仲弓)에게는 “문밖에 나가서는 큰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공손하게 하며,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공경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¹⁷⁾고 하였으며, 사마우(司馬牛)에게는 “어진 사람은 그 말을 참는다”¹⁸⁾고 하였고, 자장(子張)에게는 “공손, 관대, 신의, 민첩, 은혜를 행하는 것”¹⁹⁾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하며, 제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준다. 즉,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옹야」편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뒤

15) 구자익·박인숙, 『중국 전통교육사상의 이해』 (서울 : 문음사, 2000), 52쪽.

16) 『논어』 「안연」편 :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17) 위의 책 :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仲弓曰, 雍雖不敏, 請事斯語矣.”

18) 위의 책 : “司馬牛問仁. 子曰, 仁者, 其言也訥. 曰, 其言也訥, 斯謂之仁已乎? 子曰, 爲之難, 言之得無訥乎?”

19) 위의 책, 「양화(陽貨)」편 :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爲仁矣. 請問之 曰,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에 한다.”²⁰⁾고 하였고, 「안연」편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²¹⁾라고 하였으며, 「자로」편에서는 “거처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일을 집행할 때는 공경스럽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사귄 때에는 충성스럽게 하라”²²⁾고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공자의 교수법은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한 가운데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인물에 맞게 교육함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장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단점을 억제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뜻한 바를 칭찬하고 힘써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논어』 가운데 각기 그 예가 있다.²³⁾

또한 공자는 “교육에는 종류가 없다”²⁴⁾는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정신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교육에는 종류가 없다”가 교수 방법에 적용되면 그 의미는 교육은 응당 교육을 받는 사람의 지혜와 성격에 따라서 갖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한 가지 방법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들려고 하는 인재에 적용하면 교육은 응당 교육을 받는 사람의 소질에 적응해서 크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이루도록 해주어야지 같은 유형의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종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²⁵⁾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장단점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학생을 가리키거나 바르게 지도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은 획일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종교 교육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환경이 매우 중요한 관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대의 교육 속에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교 교육을 할 때도 역시 소수의 인원으로 학급을 편성하며, 교사와 학생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지하고 흥미 있는 토론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현대의 모든 교

20) 위의 책, 「옹야」편 :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21) 위의 책, 「안연」편 : “樊遲問仁. 子曰, 愛人.”

22) 위의 책, 「자로」편 :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23) 陳大齊, 『孔子學說』, 안중수 옮김, 『공자의 학설』 (서울 : 이론과 실천, 1996), 396쪽.

24)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25) 陳大齊, 앞의 책, 391쪽.

육과 종교 교육에서 도입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 방법의 당위성에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미래를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답식 · 계발식 교육

유교의 교육 방법은 일방적 강의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시대에 따라 암기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도 있었지만 적어도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교육은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사와 학생간의 문답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하고, 끊임없이 분발하며, 계발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아니하며, 한 모퉁이를 들어 줄에 세 모퉁이를 알려 하지 않으면 다시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⁶⁾

문답식 교육은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제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의 의문점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게 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특히 종교 교육은 주입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기본 목표를 둔²⁷⁾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종교는 강요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가정적 분위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된 신앙심이라도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과

26) 『논어』 「술이(述而)」편 :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27) 교육부, 앞의 책, 129쪽.

정에서는 차츰 신앙심이 사라지거나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나 교사가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에는 자신의 동년배나 또래 집단에 순응하려 한다. 마침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또 중요하고 복잡한 점이 있다. 권위주의적 단계에서 신의 개념은 전지전능해 보이는 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에는 아마도 사춘기 학생들의 종교적 감정은 자기 동년배들과의 생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들은 일종의 종교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숭배 대상(영화배우, 가수 등)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이상이 형성되고 일종의 의식이 형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종교적 느낌들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꾼다. 즉 자원봉사 기독교의 한 종파 또는 선불교, 공산주의나 인문주의로 방향을 돌린다. 따라서 교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유사종교적인 체험의 성격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다.²⁸⁾

종교 교육은 학생들의 선택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실제로 느껴 보고 또는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종교철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주입식 교육이나 교사의 일방적 강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없다. 학생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어떻게 알며,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주의, 그리고 질문과 답변 또는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대부분의 종교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음은 우리 교육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자기 종교의 교리는 옳고 다른 종교의 교리는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을 갖는 것과는 달리 배타적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

우리들은 대부분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고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리키는 종교 교육 조차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면 종교 교육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당

28) Alan Harris,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 교육』 (서울 : 집문당, 1993), 93쪽.

초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3) 학사병진(學思竝進)의 교육

유교는 학문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논어』의 첫머리가 “배우고 때로 익힌다(學而時習)”²⁹⁾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통해서 완성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한 곳이 『논어』 곳곳에 보인다.

공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해 보았지만 학문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여³⁰⁾ 학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³¹⁾라고 하여 배우는 것과 사고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7차 교육 과정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종교학적 종교 교육의 경우 특히 단순한 종교의 역사와 교리 또는 경전에 대한 지식만을 교육하는데 그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신앙적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앙적 종교 교육은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칫 맹목적 신앙심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학적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 측면을 배양하고, 신앙적 종교 교육을 통하여 종교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조화롭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종교 교육과 같은 특수한 교육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며, 이성적 동물이다. 삶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간다. 생각이 너무 깊으면 망상이나 공상으로 치달아 의지처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맹목적인 학문에만 의지하면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질 것이다. 현대의 교육은 사고하는 인간보다 정형화된 인간을 만드는데 치우쳐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이 이러한 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방법과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

29) 『논어』 「학이(學而)」편.

30) 위의 책, 「위령공」편 :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無益, 不如學也.”

31) 위의 책, 「위정(爲政)」편 :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루어져야 한다.

3. 종교 교육 운영에 대한 유교적 제안

1) 종교 담당 교사 양성의 문제

다른 종교나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교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분자가 아니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퇴지(韓退之)는 「사설(師說)」이란 글에서 스승의 역할을 “전도(傳道)·수업(授業)·해혹(解惑)”³²⁾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이다. 전도란 도를 전해 준다는 의미인데, 도란 인도(人道) 즉, 인간의 도리를 의미한다. 스승이란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스승이 지식만을 전수해 주는 자라면 스승은 본받을 인격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다른 교과목 담당 교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배움을 싫어하거나 가르치기를 게을리 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자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學不厭 教不倦)”³³⁾을 교사의 기본적 태도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이 두 가지 교사의 품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교사의 품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³⁴⁾

교사는 먼저 자신을 닦아서 성취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

32) 한무희·송정희 역, 『고문진보』, (서울 :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208쪽.

33) 『논어(論語)』 「술이(述而)」편.

34) 구자익·박인숙, 앞의 책, 67쪽. 이어서 교사의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는 공정무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교사는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교사는 과감하게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교사는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덟째, 교사는 정서가 안정되어야 하며, 태도는 정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홉째, 교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째, 교사는 독선적이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6

7 72쪽 참조)

고, 반드시 먼저 자기가 서고 자기가 이룬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덕행이 충실하고 전혀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덕에 들어가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또한 반드시 지식과 덕행 두 가지를 충실히 갖춘 사람을 구해서 스승으로 모셔야만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옆길로 들어서는 것을 면할 수 있다.³⁵⁾

지금까지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사나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종교학과 교육학을 함께 연구한 자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 교육 교사는 해당 종교의 전문인이나 또는 사회 과목 담당 교사, 윤리·철학 과목 담당 교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³⁶⁾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그것을 가르칠 역량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교회나 성당 혹은 사찰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오늘날 교사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교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교사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인격을 완성한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스스로 폭 넓은 교양과 인간 이해 그리고 인간적인 향취가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교육 실천에 정열적인 교사만이 인격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

35) 陳大齊, 앞의 책, 372쪽.

36) 1990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종교 학과와 교육학과의 연합하여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사 연구 과정을 개설하고, 여기에서 소정의 교직 과목과 종교학 과목을 이수한 90여 명의 교사들이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교사 양성에 지나지 않는다.

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에서의 인격교육을 위한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³⁷⁾

2) 교육과정의 문제

교육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교육관이다.³⁸⁾ 따라서 가정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학교교육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더구나 논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학교교육에서 주입식 세뇌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를 잘 알지 못한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학교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종교적 경험은 어린 나이에 주로 경험한다. 가정의 부모와 형제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소아기는 종교심의 맹아기로서 인생 초기의 경험이 지니는 심리적 지속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도 종교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⁴⁰⁾ 따라서 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좋을 것이다. 유교에서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고 들으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교양과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종교교육은 흔히 가정에서의 종교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도화된 종교, 상업화된 오락, 물질주의 가치, 가정 규

37)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세상, 1998), 46쪽.

38) 이기동, 「유교와 인격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56쪽. 이기동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공자의 가정교육에 대한 여섯 가지 철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친다. 둘째,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친다. 셋째, 침착성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넷째, 신의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두루두루 동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섯째, 착한 벼를 사귀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가 충분히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교육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39) 물론 근래에 ‘간디학교’를 비롯한 각종 대안 학교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틀은 대부분 주입식 세뇌 교육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0) 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37쪽.

모의 축소, 이차집단 관계의 확산 등으로 가족의 종교 교육 기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⁴¹⁾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에도 회의적인 논자로서는 현행 학교 제도의 교과 운영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종교 교육은 유교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보충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 교육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유·소아기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이어지는 지속적 종교 교육 과정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초기 교육 열풍이 차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내용은 영어나 예능 또는 사전 학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아기적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적 심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이 도입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종교의 핵심 사상을 경전에서 발췌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종단 학교에만 치중된 해당 경전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경전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설명보다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에 의해서 더욱 종교의 실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직접적 종교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의 교육보다 교실 밖에서 직접 여러 종교의 현실을 경험하고 그들이 행하는 의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종교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생활과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넷째, 종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부각도 중요하지만 종교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실을 교육하고 배워야 할 의무와 권리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점을 계승하고 잘 못된 점을 계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41) 이원규, 앞의 책, 497쪽.

이상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제안은 7차 종교 교육 과정 속에서 부족하거나 누락된 부분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Ⅲ. 나가는 말

다양한 종교적 교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겸손과 겸양을 미덕으로 삼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 이상적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이념에는 도덕적 관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교과목들(역사, 문학, 사회, 미술, 심리, 철학)의 종합적 교육이 적절한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이다. 직접적 종교 교육은 종교의 기본 개념들을 다루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을 실제로 느껴 보고 또는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종교 철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⁴²⁾

유교는 종합적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이 도덕적 이념에 근거했을 때 더욱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무조건 종교를 비난하거나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과학에 대한 종교의 영향이 컸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과학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 인식을 통한 올바른 인간 이해와 유교적 완인(完人)인 군자를 양성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42) Alan Harris, 앞의 책, 96쪽.

< 참 고 문 헌 >

- 『경서』(대학·논어·맹자·중용),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고문진보』.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 교육부, 200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도덕-, 서울 : 교육부, 2001.
구자익·박인숙, 『중국 전통교육사상의 이해』, 서울 : 문음사, 2000.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박홍식, 「유교의 종교관」,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이기동, 「유교와 인격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01.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최영갑, 「선진유가의 도덕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서울: 민족문화사, 1998.
황필호, 『중국 종교철학산책』, 서울: 청년사, 2001.
勞思光,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고대편), 서울: 탐구당, 1991.
陳大齊, 孔子學說, 안종수 옮김, 『공자의 학설』, 서울: 이론과 실천, 1996.
Alan Harris,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서
울: 집문당, 1993.
Benjamin I. Schwart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나성 옮김,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

The 7th Curriculum and Religious Education of Confucianism

Choi, Young-Gap

(Head office The Society of Confucianism General Manager)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how to perform the religious education of Confucianism in the 7th curriculum. First, it offers the right direction to remove misunderstanding on confucianism. And it also offers the method to perform the religious education from the confucian view point. The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performed to pursue the completion of human because the goal of confucian education is completion of human. This thesis also deals with the training of teachers in exclusive charge to accomplish the genuine religious education on the present situation without teachers in charge. Moreover, the current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to make the most advantage of the religious education and performed to cultivate religious our religious mind from the early childhood with the confucian view point that regards home education as important. To achieve these things, it should be performed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Confucianism, completion of human, education of development personality, home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